질병관리본부소식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News Letter
2008년 3월호

특집기사



기후변화와 질병발생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1979년 제1차 세계기후회의 이후 1985년 Villach 회의를 거쳐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1988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발족되어 기후변화 양상 파악 및 예측, 기후변화의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영향 분석, 적응 전략 개발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균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 해수면 상승, 극한 기온 증가 등은 다양한 기전으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3년 유럽의 혹서로 인한 대규모 사망자 발생은 심지어 부유한 국가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부분에서는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인프라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추세보다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주요 특징은 황사와 태풍의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열파 또한 증가추세이며, 하절기가 장기화됨에 따른 열대야의 기간연장 등을 들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도 질병 발생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파와 사망률 증가, 질병매개전염병의 증가, 세균성이질의 증가, 대기오염과 천식 증가 등이 그러하다.

Patz 등(2000)에 의하면 열파 및 극한 기온으로 기후가 변화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지방의 범람으로 익수,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기온 상승과 습도 증가, 홍수 등의 상황에서 음식보관의 문제가 증가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이 어려워지므로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이 증가할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기온이 1℃증가할 때마다 설사질환이 3~8% 증가한다고 한다.

목 차

01 특집기사
기후변화와 질병발생

03 선배님과의 대담
김문식전원장

04 여기는 검역소
인천항의 전염병지킴이
국립인천검역소

06 팀소개
전염병관리팀

08 WHO는 지금…
세계보건도서관
(GHL:Global Health Library)
의 건립현장을 가다

10 DB소개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란?

11 주요행사
혈액안전관리 핵심요원 워크숍
세계 결핵의 날
병원감염 심포지엄 : 병원감염
감시 및 감염관리 방안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대응T/F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말라리아나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은 기후변화에 따라 유행지역과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국내 발생보고는 없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뎅기열과 웨스트나일열은 해당 질병을 매개하는 모기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고 국제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영향은 미치나, 감염병의 양상,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과 사회형평성 등의 수많은 요인에 의해 그 정도나 양상이 변화될 것이다. 또한 보건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내성병원균의 출현은 기대여명을 단축시킬 것이고 국가 내, 국가 간 경제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질병예방 및 대응 방안

'기후변화 대응' 은 전 세계적으로 최우선 아젠다이며 보건분야도 그러하다. WHO는 기후변화보다 더 큰 환경보건의 틀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문제를 정의, 대응하고 있으며 '08년 세계보건의 날 주제를 'Health protection from climate change' 로 선정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 부서를 두고 범정부 · 사회적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최대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기 중에 유출되어 상승한 온실가스 만으로도 앞으로 100년 이상 영향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차선의 선택은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개선도 중요하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즉, 야외활동 시에 긴 옷을 입거나 곤충기피제를 도포하여 모기 등에 물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들판에 그냥 눕지 않으며 손을 자주 씻는 등의 개인위생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타기, 전기 절약하기,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등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역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혹서, 혹한 등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조사 · 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상청, 환경부와 연계하여 건강 예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곤충들의 출현, 서식, 분포를 조사 · 연구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조하여 방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검역소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질환을 감시하며, 공항 및 항공기내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질병관리체계를 통합하여 2012년까지 기상정보와 지리정보, 질병정보를 시스템화한 종합방제체계를 구현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기온상승과 함께 증가할 수인성 · 식품매개질환은 발생 상황을 매년 주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감염원을 밝히고 더 이상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전염성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배님과의 대화

이혜자
대사영양질환팀
hyejalee@yahoo.co.kr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국립보건연구원장을 지내셨고 현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계신 김문식원장님께 몇가지 여쭈었습니다.

이혜자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을 떠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여기를 뒤돌아보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김문식전원장 : 4년. 홍역, 사스. AI.

이 :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하시는 곳은 어떤 곳인지요?
김 : 국립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원, 보건의료인들의 국가면허시험을 준비하고 관장하는 곳

이 : 개인적은 근황은 어떠십니까? 김 : 편안 + 건강 (스트레스가 적어서?)

이 : 얼마전 국보1호 숭례문이 전소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 질병관리본부는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질병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매일 질병발생 양상을 모니터하면서 사태발생시의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도 이렇게 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이 : 서울 한복판을 지날 때마다 보던 숭례문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지냈습니다. 숭례문에 대한 친밀도는 얼마나 되셨었는지요?
김 : 어렸을 때 수원 화성의 남문(팔달문)에서 많이 놀았습니다(문화재 훼손?) 숭례문은 규모도 크고 아름다와서 국보 1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접근도가 좋아져서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책은 없었군요.

이 : 2년여 전 쯤 낙산사동종이 소실되었을 때도 그렇고 평소엔 무관심하다가 불타고 나서야 소중함이 느껴지는데... 문화재에 대한 무관심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김 : 문화재청은 이제부터라도 국민이 문화재를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알게 해야 합니다. 더 알게 되야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국민이 문화재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겠죠.

이 : 마지막으로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여행하시다가 감명깊게 보신 문화재나 유물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김 : 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 박물관 당국이 관람객들에게 이 향로의 제작 동기와 배경, 향로에 새겨지거나 장식된 사물들이 뜻하는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준다면 큰 감명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백제금동대향로

유래 : 백제(6~7세기)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후 일을 기약하면서 땅속에 묻어 놓았던 것이 1500여년이 지난 후에 모습을 드러냈다. 땅 속에 묻힌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진공 상태가 되어 더 이상의 부식이 되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향로가 왕릉의 부장품으로 있지 않고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 향로는 1993년 능산리 고분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논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능산리에 성왕을 추모하기 위한 절터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절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형태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형태 : 생명감 넘치는 용 받침, 날렵한 연꽃잎으로 만들어진 몸체하부, 봉래산을 형상화한 수많은 봉오리의 뚜껑, 사뿐히 내려앉은 듯한 봉황, 연꽃잎과 봉래산에 조각된 생물과 인물상 등 어떤 향로도 이보다 더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가치와 의의 : 국보 제 287호로 조형성이나 회화적인 구도는 중국을 뛰어 넘는 탁월한 예술적 감각과 독창성을 발휘하였고, 뚜껑의정상에는 한 마리의 봉황이 턱밑에 여의주를 끼고 날개를 활짝펴 웅비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

여기는 검역소

김송화
국립인천검역소 검역계
songhwa0392@hanmail.net

인천항의 전염병지킴이 국립인천검역소

인천항과 평택 · 당진항으로 유입되는 전염병을 지키는 국립인천검역소는 1946년 11월 보건후생부 인천항만검역소 발족을 시작으로 국경 왕래 운송수단인 선박(오염지역 경유), 탑승 승무원, 화물 등에 대한 검역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역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국외 전파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국립인천검역소는 검역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방지를 위한 입항선박에 대한 검역조사, 콜레라 · 황열 등 국제공인예방접종과 검역구역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보건위생관리, 세균검사를 통한 병원균의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 그리고 해외 여행객에 대한 전염병 정보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문진웅 소장 외 30명의 직원이 인천본소와 평택지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검역구역은 인천항 소재 제1船渠 앞 갑문기점 10,000m 반경 수역, 제1船渠 앞 갑문기점 3,700m 반경 이내의 해안선으로부터 200m 육역 그리고, 평택항 소재 북위37도 01분, 동경 126도 47분의 지점에서 반경 200m 이내 수역과,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육역을 검역구역으로 관할하고 있다.

수도권의 관문인 인천항은 최근 한중 간 교역량 증가로 지난 2006년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138만TEU(1TEU는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에 달해 연평균 20% 이상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국내 항만 중 2년 연속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항만이다(기호일보 : 인천항의 현재와 향후 전망, 2008.1.2).

인천항 내항은 갑문을 운영하여 선박의 입출항이 제한적인 특성이 있어서 갑문개방시간에 맞추어 검역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10척의 한중국제정기여객선이 주 26항차 운항 중에 있다.

평택 · 당진항은 우리나라 3대 국책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항내 자동차부두는 우리나라 수출물동량 1위, 컨테이너 증가율 국내 1위의 항만이다. 한중국제정기여객선 3척이 주 8항차 운항 중에 있다.











양은주
바이오과학정보팀
ejyang@ngri.go.kr

인천 · 충남지역 해양환경 내 인체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실태 조사연구사업



* 인천 · 충남지역 포구의 해수, 갯벌, 어패류에 대한 인체병원성 비브리오균의 분포실태 조사
* 검체채취 시 해수온도, 염도, 생균수, pH, 탁도 등 해양환경내의 기초자료 파악
* 매월 말 사업결과 및 양성균주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장내세균팀으로 송부



한중국제여객선 선상교육

* 한중정기여객선 12척의 승객, 승무원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콜레라 등 전염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고정승객인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 후 모니터 요원화
* 중국검역제도의 이해와 한국검역제도와의 비교분석



단체여행객 사전방문교육

* 한중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중국을 여행하는 단체여행객(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병원체/매개체별 전염병개요, 임상증상, 유의사항 및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교육
*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직접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 홍보물품(볼펜, 리플렛, 물티슈, 기피제 등) 배포



선박 무전검역

* 승선검역이외의 선박에 대한 무전검역
  검역전산망을 통한 무전검역심사, 보건상태신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 무전검역선박 보건위생관리
  오염지역출항(감시기간 경과)선박 쥐의 서식이 우려되는 목재 등 적재선박

국립인천검역소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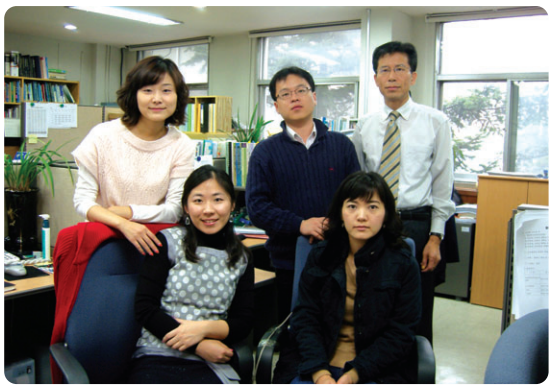
일일검역업무일정을 통해 인천항과 평택항에 입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해 검역정보(선박정보, 입항 및 검역시간, 담당 검역관 등)를 국립인천검역소 홈페이지 알림마당(http://nqs.cdc.go.kr/incheon/)에 게시하여 대국민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팀소개

전염병관리팀

전염병관리팀은 질병관리본부에 없어서 안될 중추적인 부서로서 급성전염병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 · 홍보, 예방을 위한 조사 · 연구사업, 국제협력, 정보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팀 구성은 주무계(법률, 교육 · 홍보, 국제협력 업무 등), 급성1계(수인성 · 식품매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관리), 급성2계(곤충매개전염병관리), 예방의학 전공의 업무로 구분된다.





❖ 주무계 주무업무

『법령 재개정 업무』는 국제보건규칙(2005)의 후속조치로 개정된 국외 관련법 및 하위법령을 분석하여 국내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재개정 하고 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 · 훈련과정(FMTP)』은 시 · 도 및 시 · 군 · 구 보건소의 전염병 위기 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 ·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일선 보건소의 보건소장 및 전염병업무 담당자, 학교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60년사』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질병관리를 담당했던 조직의 변천사를 정리하고 시기별 주요관리 대상 질병과 그에 대한 대비 및 대응과정을 그리고 있다.

『정책홍보평가사업』은 부서별 보도자료, 대언론홍보, 매체활용홍보, 정책홍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연 1회 우수부서 선정하고 그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국제협력 업무』는 WHO 정기총회, 지역총회, 집행이사회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준비사항을 총괄하고, 외빈의 공식 기관방문을 지원하며, 주요 국가의 전염병관리 기관과의 협정체결 업무지원과 APEC 보건실무그룹 및 ASEAN+3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통합 정보화 사업』은 2008년 3월 3일 개편된 질병관리본부 대국민 포탈 사이트를 개통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질병정보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e-KCDC를 만드는 일이다. e-KCDC는 통합된 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보 생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로서 콘텐츠화하여 서비스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급성1계 주무업무

『입국자 추적 및 대량 환자 관리 시스템』은 수인성 · 식품매개 전염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환자관리를

이소담
전염병관리팀
kcdc80@hanmail.net



통해 2차 환자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박수홍과 김유미가 홍보대사로 활약중인 『범국민 손씻기 운동 본부』운영을 통해 질병예방의 첫걸음인 손씻기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전염병 관리 컨퍼런스』는 한 해 동안의 전염병 관리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전염병 관리 분야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질병관리본부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이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 관리』는 농림부, 학계 교수가 참여하는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발생정보 상호교류, 학술연구등의 공동 예방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도축장 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확진을 위하여 국내 유일의 CJD 전용 생물안전(BL3)부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급성질환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A형 및 C형 간염의 예방 및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사업과 콜레라 보초감시 및 장티푸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구 용역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 급성2계 주무업무



"말라리아"는 휴전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하는 모기 매개 질병으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이들 위험지역 주민의 보건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이와 더불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 말라리아 환자 감소를 위하여 매년 대북 말라리아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 및 금강산 관광객들에 대한 말라리아 예방 교육 홍보를 하고 있다.

『곤충매개전염병 관리』는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등 해외 유입 곤충 매개 전염병의 관리 대책 수립 및 머릿니, 벼룩, 빈대 등 위생해충에 대한 방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 · 관리』는 추수기 농촌에서 다발하는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예방관리하는 업무로 지역주민에게 토시, 기피제등을 제공하고 집중교육을 통해 환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병원감염 관리』는 2008년 신설된 업무로 감염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 인증체계 개발, 병원감염 대책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등 건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 **예방의학 전공의**는 역학조사 관련업무 및 기후변화 대응 업무, 질병관리본부 인턴쉽 학생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WHO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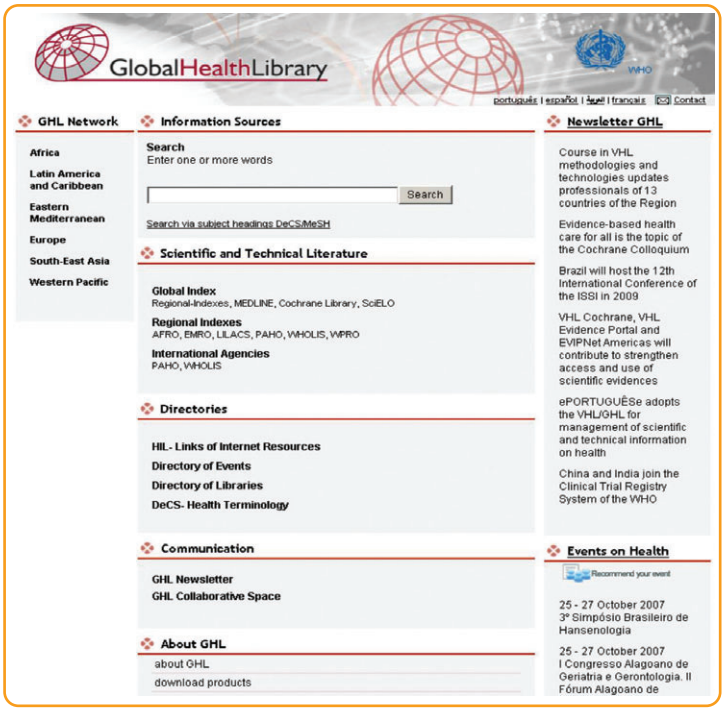
세계보건도서관(GHL ; Global Health Library)의 건립현장을 가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지난 3월 3일 ~ 7일 세계보건도서관(GHL ; Global Health Library : 이하 "GHL 프로젝트"라 함) 구축을 위한 WPRIM(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워크숍이 열렸다.

WHO서태평양지역본부(WPRO ; Western Pacific Region Office : 이하 "WPRO"라 함) 도서관, 정보통신팀 및 지식관리팀 담당자와 WHO 판아메리카지역 (PAHO ; Pan-American Health Organization : 이하 "PAHO"라 함) 책임자 그리고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박미정 연구원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서태평양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서 세계 보건 도서관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중요한 실무 협의가 이루어졌다.

2006년 시작한 GHL 프로젝트는 버츄얼 도서관으로서 전세계 각 나라 나라에서 생산되는 보건의학 분야 저널을 인덱싱하고, 세계를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정보망을 구축한 후 웹상에서 보건의료정보망을 하나로 연결하여 세계보건도서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WPRO에서는 WPRIM이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동경, 북경, 서울에서 각각 회의를 통하여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왔고 금년에는 WPRO 공동 워크샵을 통하여 기술과 콘텐츠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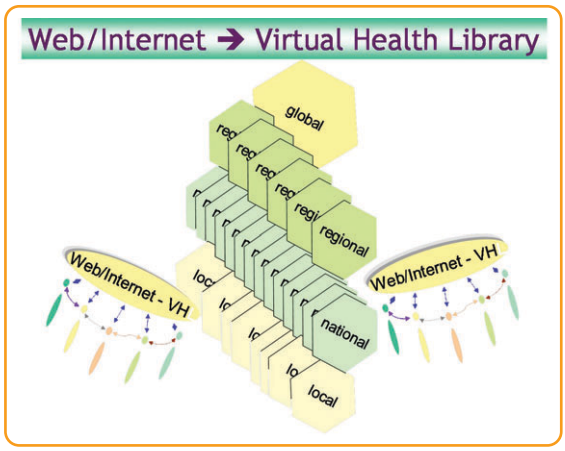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에서는 GHL 프로젝트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PAHO의 "BIREME"이라는 무료패키지 프로그램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협의와 교육을 진행하였다. DB를 만드는 법에서부터, 검색엔진, 검색프로그램, 인덱싱프로그램, 데이터 질관리, 제너럴 에디터, 서버, 브라우저 디자인, 운영체계등에 대해 이론을 설명하고 하나씩 실습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무료저널 제공 웹사이트인 "SciELO"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었다.

박미정
전염병관리팀
apotre@hanmail.net

이번 워크숍을 진행한 WHO PAHO 버츄얼 도서관 프로젝트 책임자인 Dr. Ernesto Spinak는 1985년부터 UNESCO, WHO와 공동으로 20개의 DB와 30개의 유틸리티를 포함하고 있는 CDS/ISIS 툴킷의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WHO 회원국의 도서관 사서와 IT 전문가들에게 툴킷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하여 실제적인 유저와 함께 GHL을 세워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워크숍 WPRO 책임자인 Charles Raby 박사는 GHL 프로젝트를 서태평양 지역에서 조기에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 서울회의부터 본격 참여하고 있는 WPRIM 사업에 기대가 크다고 하였다.



보건의학 정보의 팽창과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의학 지식의 생산자이면서 중계자요, 소비자가 되는 효율적인 지식 정보망 구축과 활용이라는 WHO 세계보건도서관의 목표가 우리 지역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질병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 예상된다.

GHL Homepage http://www.globalhealthlibrary.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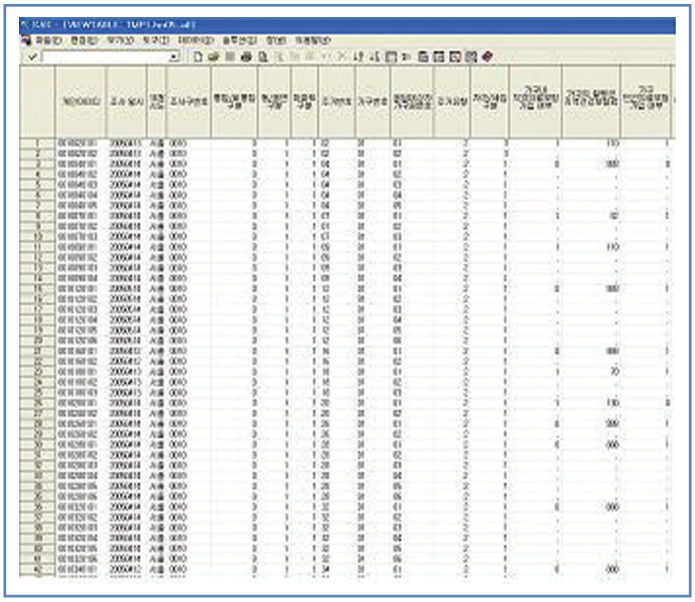


DB 소개

이나연
만성병조사팀
nylee81@hotmail.com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란? http://knhanes.cdc.go.kr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구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5년에 공표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이다. 현재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독립적으로 시행하던 영양조사와 건강조사를 1998년에 통합한 것이며 지금까지 제1기(1998), 제2기(2001), 제3기(2005)의 조사가 실시되었고, 현재 제4기(2007~2009)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는 원자료에서 자료정제 및 논리적 오류 수정을 거친 자료로 조사 당시 전체 결과 중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통합(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DB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건수(건강설문조사 기준)는 제1기(39,331건), 제2기(37,769건), 제3기(34,145건)이며, 검진 및 영양조사 자료건수는 건강설문자료의 약 1/3 수준이다. 본 원시자료를 통해 건강(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유병률 등) 및 영양수준, 보건의식행태(흡연, 음주, 운동 등), 의료이용 등에 관한 지표를 산출할 수 있고, 상호간의 관련성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요청



2008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제1기, 제2기, 제3기 자료(제1기, 제2기는 건강설문 및 검진조사)를 SAS와 SPSS 데이터셋의 형태로 공개하였다.

원시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 여부에 관한 질병관리본부의 심사를 통해 원시자료 CD와 자료이용지침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는 연구 · 개발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되며, 본 자료를 이용해서 논문 및 발표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 논문 현황 및 발표현황에 등록해야 한다.

주요행사

김남희
전염병감시팀
nncnh@hanmail.net

혈액안전관리 핵심요원 워크숍

헌혈혈액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혈액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은 2008년 3월 13~14일 충남 태안군 꾸지나무골 유스호스텔에서 혈액안전관리 핵심요원간의 협조체계 마련과 비상사태 발생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혈액안전관리업무개발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혈액안전관리 핵심요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혈액안전 관련 현안 발생시 비상연락/대응체계 구축, 혈액원 기관장 회의 개최 및 운영방안, 혈액안전관리업무 부서간 협력사항에 대해 분임조를 편성하여 토의 및 발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세계 결핵의 날

"I Am Stopping TB" 내가 먼저 STOP TB

2008년 '세계 결핵의 날'은 결핵으로 치료받는 환자, 간호사, 의사, 연구자 및 전세계적으로 결핵 퇴치운동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 일원들의 헌신과 노력의 성과에 대해 축하, 격려하며,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날이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과 대한결핵협회는 2008년 3월 24일(월) '세계 결핵의 날'을 맞이하여 청계천광장 일대에서 결핵예방 거리캠페인을,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세계 결핵의 날'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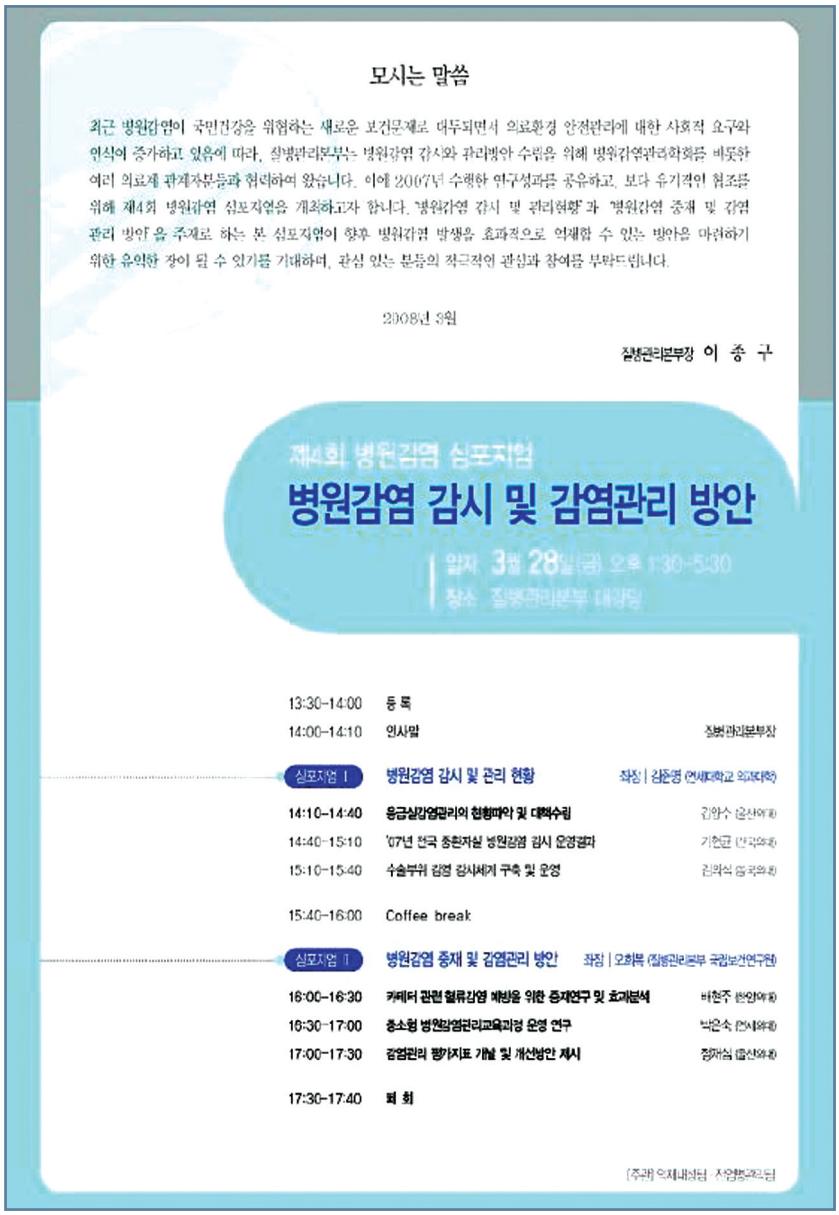




주요행사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병원감염 심포지엄 : 병원감염 감시 및 감염관리 방안



모시는 말씀

최근 병원감염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보건문제로 대두되면서 의료환경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 감시와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병원감염관리학회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 관계자분들과 협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2007년 수행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제4회 병원감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병원감염 감시 및 관리현황 과 병원감염 중재 및 감염관리 방안 을 주제로 하는 본 심포지엄이 향후 병원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익한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질병관리본부장 이 종 구

제4회 병원감염 심포지엄

병원감염 감시 및 감염관리 방안

일자: 3월 28일(금) 오후 1:30~5:30

장소: 질병관리본부 대강당

13:30~14:00	등 록		
14:00~14:10	인사말		질병관리본부장
심포지엄 I	병원감염 감시 및 관리 현황	좌장	김준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4:10~14:40	응급실감염관리의 현황파악 및 대책수립		김광수 (울산의대)
14:40~15:10	'07년 전국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 운영결과		기현균 (인제의대)
15:10~15:40	수술부위 감염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김학식 (동국의대)
15:40~16:00	Coffee break		
심포지엄 II	병원감염 중재 및 감염관리 방안	좌장	오희복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16:00~16:30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예방을 위한 중재연구 및 효과분석		배현주 (한양의대)
16:30~17:00	중소형 병원감염관리교육과정 운영 연구		박은숙 (연세의대)
17:00~17:30	감염관리 평가지표 개발 및 개선방안 제시		정차심 (울산의대)
17:30~17:40	폐 회		

(주관) 역제내성팀, 지정병원리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병원감염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약제내성팀에서는 2008년 3월 28일(금)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병원감염 실태와 병원에서의 감염관리 방안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부 『병원감염 감시 및 중재』에서는 중환자실 병원감염 실태, 수술부위 감염 실태,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예방을 위한 다기관 중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감염관리 교육 및 평가』에서는 중소형 병원의 감염관리교육과정 운영결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지표 개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병원감염 실태를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감염관리 강화를 통한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ISSN 1976-7579

9 771976 757007 03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발 행 일 : 2008. 3월(통권 제4호)
발 행 인 : 이종구
편집위원 : 권준욱, 박미정, 박숙경, 배송미, 양은주, 이혜자, 최우영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 122-701
전 화 : 02-380-2631~5 팩 스 : 02-354-2723